손학규 합류, 범여국민경선 성사되나

김근태 만나 "대통합 공동노력" 밝혀

민주 통추협, 대통합·단일경선 제안

중도개혁통합신당과 민주당이 '소(小)통합' 타결을 연기하고 손학규 전 경기지사와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이 14일 범여권 통합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하면서 범여권 '대(大)통합' 또는 단일후보 선출을 위한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 성사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우상호 의원은 이날 경기고-서울대 동창이자 절친한 친구인 손 전 지사와 김 전 의장의 조찬회동 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두 분이 이날 과거 회귀적, 냉전적 수구세력의 집권을 막고 평화개혁세력의 대동단결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손 전 지사가 지난 3월 한나라당 탈당 후 범여권과는 거리를 둔 채 독자세력화를 모색해 왔던 점을 감안하면 이날 두 사람의 합의는 손 전 지사가 본격적으로 범여권에 합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열린우리당 탈당파가 시민사회세력과 연대, '대통합추진협의체'를 추진 중이고 중도개혁통합신당과 민주당도 합당을 잠시 미룬 채 통합 정국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손 전 지사의 이 같은 입장 변화는 범여권 통합 작업을 가속화하는 기폭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손 전 지사는 이날 모임에서 김 전 의장의 대선 불출마 선언을 살신성인의 결단이라고 높이 평가했고 김 전 의장은 손 전 지사에게 범여권 대선주자 연석회의에 참여, 국민경선을 진행하면서 통합정당을 창당할 것을 제안했다.

김 전 의장은 "후보자 연석회의와 통합정당 창당에 진력하는 게 지지자를 설득하는 가장 유력한 방법"이라며 "그 한복판에 손학규가 있다는 걸 잊지 말라. 상황이 잘못되면 손학규뿐 아니라 진영 전체가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만큼 당신의 판단과 선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두 사람의 합의가 원론적이고 추상적인 수준에 불과하지만 김 전 의장이 범여권 대선주자 연석회의 참여를 강력히 권유한 데 대해 손 전 지사가 다소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고 볼 수도 있어 향후 연석회의 성사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앞서 손 전 지사는 13일 조찬 강연에서도 "냉전지향적인 정치세력의 집권을 막고 평화지향적인 세력이 집권할 수 있도록 커다란 의미의 대통합, 대단결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범여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전 의장은 또 이날 낮에는 천정배 의원을 만나 범여권 단합을 강조하는 등 다음주 초까지 대선주자들과 범여권 각 정파 대표자들을 두루 만날 계획이다.

한편 민주당은 '중도개혁통합추진협의회'를 사실상의 '제3지대'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중심으로 중도개혁세력 대통합을 이루고 단일경선을 준비하자고 범여권 제 정파에 제안하고 나섰다.

민주당 박상천 대표는 지난 13일 당 회의에서 "중도개혁통합신당을 출범시킬 때보다 많은 현역의원을 참여시키고 바로 대선기구를 준비시켜 경선문제부터 빨리 풀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도와 달라"며 범여권 단일경선에 대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처럼 대통합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이해찬 전 총리, 한명숙 전 총리, 김혁규 의원 등 친노성향 대선후보들도 범여권 단일 오픈프라이머리에 참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대선 경선 출마 포기를 선언한 김근태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서 손학규 전 경기지사를 만나 손을 맞잡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우리당 내달 임시전대 대통합 추진

비노 진영 "도로 우리당" 반발…내주까지 20여명 탈당

14일 대통합 신당 추진 마감 시한을 맞은 열린우리당은 지도부 재신임과 내달 중순 임시 전당대회에서 대통합 신당 창당에 나서기로 결정, 당장 발등에 떨어진 '열린우리당 해체'라는 급한 불은 껐다. 그러나 비노 진영 의원 10여 명은 이에 반발, 15일 집단 탈당을 강행한다는 계획이어서 당의 진로를 둘러싼 진통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열린우리당은 이날 오후 당 지도부의 대통합 비상대권 위임 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국회의원과 당원협의회장 등 167명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회의를 갖고 내달 중순 임시 전당대회를 소집, 대통합 신당 참여 방식을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세균 의장의 당 지도부는 임시 전당대회까지 한 달 정도 더 유지되며 대통합 추진 시한도 한 달 연장됐다. 열린우리당 지도부가 구상하고 있는 대통합 방식은 시민사회진영의 신당에 열린우리당이 합류하는 당 대 당 형식의 '신설합당' 방식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비노 진영 소속 의원들은 당 지도부의 대통합 추진 방안은 '도로 열린우리당'이라며 15일 탈당을 불사하겠다는 반발했다. 탈당에 나설 의원들로는 문희상, 김덕규 의원 등 중진 의원들을 포함, 문학진, 정봉주, 이원영, 최성, 김우남, 신학용, 한광원 의원 등 비노 진영 의원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친노 그룹으로 분류됐던 이영호 의원(강진·완도)도 비노 그룹과 함께 탈당에 나설 것으로 알려져 주목을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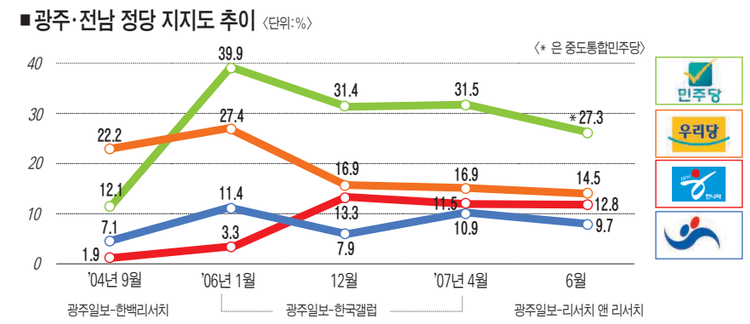
한편, 18~20일 사이에는 정동영 전 의장과 일부 의원들이 추가 탈당을 결행할 것으로 알려져 내주 초까지 모두 20여 명이 탈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수치는 당초 탈당 규모인 30~40명에는 미달하는 것으로 당 지도부의 적극적 만류가 어느 정도 먹혀든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실제로 충청권 의원들이 당 지도부의 대통합 추진 노력을 지켜보자는 방향으로 선회했고 전북지역 의원들도 지도부와 행동을 함께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중도통합신당 양형일 대변인은 "우리당 지도부는 아직도 기득권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며 비판했으며 유종필 민주당 대변인은 "오는 20일에는 반드시 통합 버스가 출발한다"며 열린우리당 탈당 그룹의 통합민주당 합류를 촉구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광주·전남 한나라당 고공 지지율 거품인가 대세인가



李·朴 합계 35%·정당지지 10%대

"대선까지 간다" "일시적 반사이익"

한나라당 대선주자들이 광주·전남에서 상종가를 치고 있다. 예비후보들의 지지율 고공행진은 과거 대선 과정에서는 볼 수 없었던 기현상이다. 당 지지도 역시 지난해 12월 사상 처음으로 '마(魔)의 두 자릿수'를 넘어선 이후 계속 10%대를 지켜가고 있다. 최근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들도 10% 안팎의 득표율을 기록하는 등 선전하고 있다. 당 관계자들은 호남의 상승세에 반색하는 표정이 역력하다.

역대 선거에서 한나라당에 대해 극도의 거부감을 표출했던 호남 민심에 '이상기류'가 형성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호남을 대변할만한 범여권 유력 후보가 없는 상황에서 얻은 반사이익에 따른 단순한 거품일까.

당원수도 눈에 띄게 늘어

◇**지지율 고공 행진**=한나라당 대선 후보 '빅2'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는 광주일보를 비롯한 광주·전남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5개월째 선두권을 지키고 있다. 지난 9~11일 실시된 광주일보·리서치 앤 리서치 조사에서 이 전 시장은 25.2%의 지지를 얻어 1위를, 박 전 대표는 10.3%로 손학규 전 경기지사(10.4%)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이들의 합계 지지율은 35%를 넘나들고 있다. 과거 한나라당 대선 후보들은 대선을 앞둔 지역언론사 여론조사에서 5% 안팎의 지지를 얻는데 그쳤다.

정당지지도도 지난해 12월 광주일보·한국갤럽 조사에서 두 자릿수인 13.3%를 기록한 이후 10%대를 지켜가고 있다. 최근 광주일보·리서치 앤 리서치 조사에선 12.8%를 기록, 우리당(14.5%)과 오차 범위 내에서 경합했다. 특히 광주에선 17.1%로 우리당 마저 추월했다.

지난해 10월 25일 해남·진도와 올 4월 25일 무안·신안에서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는 설철호, 강성만 후보가 각각 8.2%와 11.9%의 지지표를 얻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지도 상승과 함께 당원 수도 눈에 띄고 늘고 있다.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당비를 내는 책임당원이 지난해 말 900명에서 14일 현재 4천500여명으로 5배나 증가했다.

◇**상승 배경은**=이같은 지지도 상승은 2004년 이후 펼쳐온 서진(西進)정책과 적극적인 호남 공략에 힘입은 바 크다. 당 지도부와 지역화합특위, 대선 주자들은 수십차례 광주·전남을 찾아 정책이나 예산 지원면에서 예전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애썼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같은 지지율 변화는 호남인들이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던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의 실정에 따른 반사이익의 측면이 강하다고 지적한다. 범여권 유력 주자들의 잇딴 중도 탈락과 지리멸렬한 대통합도 한 몫하고 있다.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쪽으로 쏠리는 이른바 밴드웨건효과라는 해석도 있다.

◇**대세인가, 거품인가**=광주·전남에서 한나라당 상승세가 오는 12월 19일 대선 투표때까지 이어질 것인지, 최소한 두 자릿수 득표율을 기록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전망은 엇갈린다.

지역화합특위를 이끌어온 한나라당 정의화 의원(부산 중·동구)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집권과 5·18 문제 해결 등으로 호남의 한이 어느 정도 풀린 만큼 유권자들이 지역주의를 탈피해 경제성장을 이끌 후보를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대선에서 한나라당 후보가 최소 15% 이상 득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호남인 지지 휘발성 강해"

반면 류한호 광주대 언론홍보대학원장(정치커뮤니케이션 전공)은 "현재 한나라당 대선주자에 대한 호남인의 지지는 휘발성이 강한 것"이라며 "범여권 후보가 질서 있게 정리되면 다시 역전될 수 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지역정치권 한 관계자는 "한나라당이 호남지역민들의 뿌리깊은 반감을 해소할만큼 과거사 반성이나 정체성 회복을 이루지 못했다는게 일반적인 분석"이라며 "분열된 민심은 대선 직전 다시 하나로 합쳐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리서치 앤 리서치 이태훈 연구원은 "올들어 여론조사에서 한나라당 예비후보에 대한 호남인들의 지지가 견고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하지만 광주·전남 유권자들이 호남을 대변할 인물을 찾지 못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데다 표심의 응집력이 강해 그 결과는 섣불리 예측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www.park1004.com 분양문의 062) 521-1100

고인의 편안한 안식처가 될 호남최고의 명당_

청계공원을 추천합니다

풍수지리상으로 황금 닭이 알을 품고 있는 「금계포란형」으로 자자손손 부귀영화를 누리는 지형인 배산임수의 묘원에 자리한 청계공원은 고인의 영혼이 안식을 찾는 천혜의 명당입니다.

선착순 배정 ▶신청금 입금 순서대로 선착순 배정합니다. ▶신청금 10만원 예금주(주) 파라밸리 농협 1197-01-000331 ▶미계약시 입금하신 신청금은 전액 환불해 드립니다.

| 호남지역 최고의 장묘지로 무한한 가치보장 |

배산임수의 풍수묘원 청계공원은 호남최고의 순수 납골공원묘지로 조상과 후손을 한자리에 안치시키는 미래형 가족선산입니다.
매장묘와는 다른 영구적인 안식처로 조상의 영혼을 더욱 안락하게 모실 수 있습니다.

| 호남최고의 명당을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 |

현재 공사완료, 즉시 안치 가능

| 1년 365일 언제라도 현장답사 환영 |

광주사무실에서 공원방문차량 운행
(탑승인원이 한정돼 있으니 방문전에 미리 예약하십시오)

실제 안치된 모습

청계 32호

청계 24호

실제 안치된 모습

사각봉분형 16호

청계 8호

■시행사 : PARAVALLEY (주)파라밸리 ■재단법인 : 아름다운 청계공원 청계원